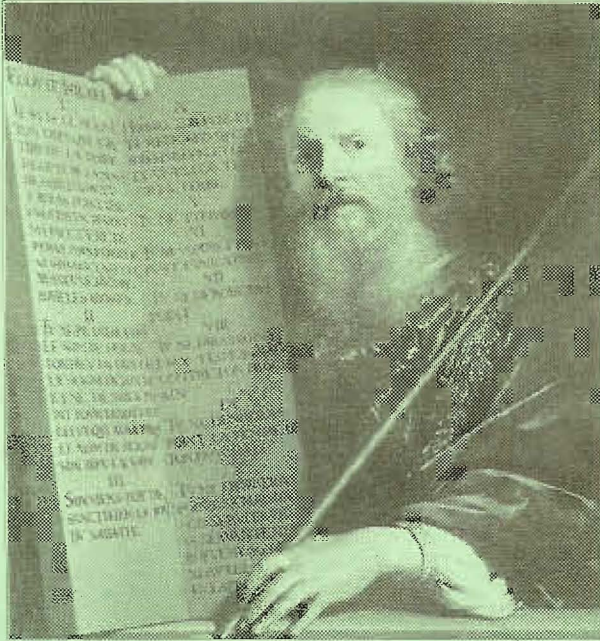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6주일
제34권 12호(가해) 2014·2·16

[묵상]



계명은 결국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표현입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가 중요함이 아니며
바로 그 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형식의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웃사랑, 인간사랑에 있음을

간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살인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을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평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톤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인영 베드로 (생)이용운, 김지수 보나 & 김지혜 크리스티나, 김아영 아가다, 성호재 시몬 & 영님 엘리사벳 & 유진 로렌스
주 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전시웅 요한, 이용식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한기현 도밍고, 정운 요셉, 김두철 아브라함, 임재화 안나, 이병중, 신대진 베드로 (생)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겐마 & 정엘리스 클라라, 변혜경 올리아나,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테레사 가정, 한장환 안토니오, 정승원 셀리 & 트레이시, 장정진 베로니카, 주태욱 토마스, 정화숙 테레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15,15-20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 - 들!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2,6-1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 음 마태오(Matthew) 5,17-37

영성제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09	209	182
봉헌	270	257	269
성체	Still	284	292
파견	401	187	218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빛나간 성모 신심들

가. 상주의 사적 계시를 중심으로 한 성모 신심

이러한 영적 결실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위들은 계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에 비추어 그러한 묵시와 예언과 기적 현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런 사적 계시의 내용들은 당시 그가 받은 교리 공부, 강론, 영적 상담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풍부한 감수성으로 꾸며진 임의적인 환상과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지옥이나 연옥에 관한 조악(粗惡)하고 상상적인 묘사들이 단적으로 그것을 말해 준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도 “성경도 신학도 사후의 생명에 관하여 충분한 빛을 비추어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어떻게 밥상을 같이하셨고, 또 이들의 침대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계시란 참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40일 영채수난 숨은 행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그가 이제껏 듣고 알아 왔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수난을 자신의 삶과 지식에 비추어 본 목상이 되어버린다. 그림으로 보여 주는 환시의 내용이나 모습들, 지구(地球儀)를 중심으로 천주 성삼을 묘사하는 방식,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을 드러 내는 방식, 천사나 마귀를 그려 내는 것들은 당시 『요리강령』(要理綱領)이나 교리서의 설명 이상의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둘째, 당시 교회의 대중적 신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듯이 고통이 찬미되고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공로를 쌓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앙의 소극적인 측면이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기적적 현상들을 언급함으로써 신앙 중심이 아니라 기적 중심의 인상이 짙다. 이는 이른바 ‘유사 영성 운동’ 또는 사이비 영성 운동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들의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 예물을 강요하는 현상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목주 간주 경문 전파 6만 명이 되면 큰 영광을 준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40일 영채수난 숨은행적) 머리말: “우리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나라 평화를 위하여 외교인들을 돌보시되, 그중에 천주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마음을 바른길로 인도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러시아를 구하소서. 예수 성심이여,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우리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같게 하소서.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지극히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목주 간주경 넣어서 한 제미 하는 데 공산주의자 다섯 명 회두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 자체도 기도를 수량적으로 계산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교회 교도권에게서 여러 번 금지 명령을 받고도 순명하지 않은 점에서 겸손이 보이지 않는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참된 영에서 온 계시라는 것을 식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 역시 겸손을 강조하면서 “불확실한 자기 독시보다 확실한 장상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하였다. <◆계속>

화해 하이라

오늘 복음 말씀 앞에 당장 드는 생각은 '내가 성을 내거나 바보라고 한 사람은 없었나? 멍청이라고 한 사람은 없었나?'입니다. 비록 죽도록은 아니지만, 굳이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그런 말씀 앞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이나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마지막엔 지옥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볼멘소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오히려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에서 '머리가 빈 놈', '하느님도 모르는 놈'을 뜻하기에 심한 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 속에서 그 처벌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태 5,26) 하시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반사로 일어나는 내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히 찔러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큰 싸움이 있는 곳에서 원인을 알아보면, 지나가다가 어깨 한 번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그 시작은 자기만 식사 자리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힐끔 쳐다봤다고 때리고, 목청 높였다고 주먹이 날아가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상이 다르면 처연하기만한 글귀로 상대를 단죄합니다. 아니 어떤 편 전쟁의 원인조차도 시사합니다. 물론 대단하게 보이는 명분을 당사자들은 내세우지만, 결국엔 자기 욕망 하나 더 채우기 위해 욕하고 싸우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 시작을 보면 너무나 작은 불씨일 뿐입니다. 아

주 작은 부딪힘이 형편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은 정말 악의화신이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자비로운 웃음도 있으며, 선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봅니다. 내가 풀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이 평화롭지 않은 마음과 공격적인 성향은 정말 타당하고 정당한 것일까요? 내가 욕을 쏟아붓는 그 사람은 욕먹을만한 뽕 달린 도깨비일까요?

나는 왜 계속 심판하고 있고, 더 큰 심판을 또 만들고 있으며, 그래서 내 마음은 지옥이 되어 있을까요?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 속에 내 삶이 파헤쳐진 경우라면 잠시 멈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화의 원인이 엄청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원인을 스스로 크게 만들어 가는 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 움큼 정도의 것이었다면 정리하는데, 포기하는데, 이해하는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빚진 그 한 닢을 갚고 평화롭기를,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에페 4,26)

◆강귀석 신부 / 서울대교구 개봉동성당 주임

점점 더 어려운 값

참 나이 값 못한다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이 많은 이들 흥분 적 있었습니다. 제 뒤통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그뻔 몰랐습니다. 밥 값도 그렇고 이름 값도 그렇고 자리 값도 그렇지만 세상 어려운 게 나이 값이란 걸 나이를 먹어서야 알았습니다. 요즘은 나이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많고 겁나더군요.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신덕례 대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사도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가지 회수

오는 3월5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3월2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16일 주일 9:30am 미사 한국어로 진행(프레지던츠 데이연휴)

◆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 박배어 레이크에서 연수중(14일금~16일주일)인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에게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한국학교 지원 양업체 친교 음식 판매

- 일시 : 3월2일(주일)
- 메뉴 : 족발, 빈대떡, 도토리묵 등 맛있는 홈메이드 반찬류와 양업체가 직접 제조한 막걸리
- 낮미사후 친교점심 : 콩나물국밥을 무료로 드립니다.
- 판매수익금 전액 : 한국학교에 도네이션합니다.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양업체장 ☎(213)505-2941

◆ 주일학교 학생 새 복사단 22일(토) 첫모임

- 대상 : 첫영성체를 한 주일학교 등록학생이면서 부모님이 열심히 신자인 학생
- 첫모임 : 2월22일(토) 오후 2시
- 문의 : 신동윤 빈첸시오 복사담당 교사 ☎(310)744-5878
- 입단식 : 6개월 교육기간이 끝나면 8월중 낮미사(오전11시)중 에 입단식 거행(날짜 추후 통보)

◆ 성가 반주하실 분 연락 주세요.

- 미사에 봉사하실 성가 반주자를 찾습니다.
- 문의 : 오마우라 수녀

한국 가톨릭 첫 순교자 등 124위 시복

프란치스코 교황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들' 福者 선포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의 가톨릭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 대한 시복(諡福)을 승인했다고 로마 교황청이 8일(한국 시간) 밝혔다. 이로써 한국 가톨릭은 1984년 김대건 신부 등 103위에 대한 시성식 이후 30년 만에 큰 경사를 맞았다. 시복은 순교자 등을 교회가 공경하는 인물인 복자(福者)로 선포하는 것으로 이후 성인(聖人)으로 추대된다.

외사촌 정약용의 영향으로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된 윤지충(1759~1791)은 교리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됐으며 한국 최초의 가톨릭 순교자로 기록돼 있다. 함께 시복되는 123위는 1791~1888년 순교자들이다. 이번 시복 발표에 따라 교황이 방한해 직접 시복식을 집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1984년 103위에 대한 시성식은 당시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집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황청 해외선교 대체인 아시아뉴스는 "교황이 대전교구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가 개막하는 8월13일 한국을 찾아 가톨릭의 성모승천대축일인 15일 시복식을 주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9일 "시복된 순교자들 중에는 신분 제도를 넘어 남녀평등과 인간적 권리 신장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많다"며 "이 순교자들의 공동체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밝혔다. <◆자료 : 동아일보>

◆ 개인초 봉헌하신분들 찾아가세요.

주님 봉헌 축일에 개인초를 봉헌하신 분들은 성물부 또는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김막달레나 ☎(310)539-3377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16일(주일) : 하버카슨 1,2반(비빔밥 \$3)
* 주일학교 : 수업없음(프레지던츠데이 연휴)
- 2월23일(주일) : P.V.1(육개장 \$3)
* 주일학교(4학년 햄&치즈 샌드위치)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기정	김대우	김옥보	김원모	김원호
	김재희	김정선	김정희	김 준	김학겸	노혜숙
	박근식	박상원	박상준	박영희	석순영	성미선
	신경훈	안재만	오상준	원건희	이미경	이석진
	이숙화	이인석	이일길	조소영	최길주	최미열
	최상만	최진수	최희숙	한혁수	황인협	황지영
	이크리스	한길선례				
	합계 : \$3,385					
	주일미사 헌금 : \$2,680					

성전헌금	권태만	김기정	김대우	김원모	김원호	김재희
	김정선	김정희	김 준	노혜숙	박상준	석순영
	신경훈	안재만	원건희	이석진	이숙화	이인석
	최길주	최미열	최상만	최진수	한혁수	황인협
	황지영	이크리스	한길선례			
	합계 : \$2,317					
	감사헌금 : 한길선례					
	주보 광고후원 : \$500					
	재활용 : \$82					

공지사항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루카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3학년~12학년
- 필사마감: 4월13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20일)

◆ 중등부 사순 피정

- 일시: 3월21일(금)~23일(주일)
- 장소: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웹사이트: www.oakglen.org)
- 대상: 7학년~8학년
- 참가비: \$60
- 준비물: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남스텔라 중등부 교무주임 ☎(310)918-3324

◆ 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3월28일(금)~30일(주일)
- 장소: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웹사이트: www.oakglen.org)
- 대상: 9학년~12학년
- 참가비: \$60
- 준비물: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교무주임 ☎(310)709-3343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12학년
- 일시: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200(접수: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2월23일까지 15명 자리남았음(no refund!)
- 문의: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한국학교 SAT반 학생모집중

- 대상: 현재 8학년이상/11월1일 시험을 볼 예정인 학생
- 문의: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 교장 ☎(310)464-7490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 내달 마감

- 내용: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Letter 용지 5매내외
(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2014년 3월31일
- 당선작발표: 2014년 4월
- 시상: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 서로 웃으면서 인사 합시다. ☺

소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2/16(주일) 오전 8시 온천피정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2/8(토) 오후 6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2/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주량 요한 782-8549 2/15(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2/8(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박진숙 로사 592-6712 2/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최경숙 수산나 753-6959 2/2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2/11(화) 오전 11시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송호장 요셉 213-550-6653 2/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오세원 아타나시오 569-0482 2/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주셉마 530-3470 2/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2/21(금) 오후 7시 성당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2/14(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성미선 리디아 944-4577 2/15(토) 오후 5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선민 마리아 427-1927 2/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2월 사목회

오후 1시

용 기

제 아내와 떨어져 지내면서 기러기 아빠가 된 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어느 날 아내와 저는 최근 인기 있다는 미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후에 그녀는 공항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곳에 엄마를 기다리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베개를 하여 저와의 아쉬움을 달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저 주인공 아저씨는 아무리 봐도 연기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다른 배우들은 다 자연스러운데, 유독 저 아저씨만 그래. 대사에 멋있어 보이려고만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자긴 어떻게 생각해?”

약간의 공백이 흐른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사실 나는 밑의 자막을 읽느라 배우의 표정을 볼 겨를이 없어. 그래서 난 아직도 송강호나 설경구, 최민식이 지구상에서 연기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

또다시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아내가 말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군! 그럼 앞으로는 저 아저씨가 나올 때 글을 읽지 말고 표정 연기를 봐. 그러면 아마 내 생각이 날거야. 나도 필리핀에서 그렇게 할게.”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떠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나온 30년간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글을 빨리 읽지 못한다는 관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자기답다는 용기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1993년 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팝송의 제목을 궁금해하던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초적인 영어를 모를 수가 있어?’라는 반문을 하지 않고, 늘 진지하게 답변해주던 그녀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노래의 제목을 번역하면, ‘~할수록’인 것 같아.” 그 이후 저는 ‘사랑할수록’이라는 곡을 작곡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필리핀에서 다시 돌아온 날, 우린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지나온 30년 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얘기를 처음 꺼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스스로 나를 만들어왔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의 모든 걸 만들어 왔던 것 같아! 좌절의 어둠에 빠져있던 그 수많은 날들에 늘 빛이었던 당신, 고맙다.”

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보다 숭고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겨울비가 내리는 밤에 적습니다.
‘사랑한다고... 영원히!’

◆김태원 바오로 / 가수

-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

축일에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 전례력에 나타난 축일의 형태를 보면 주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축일, 성인 성녀 축일, 이 밖에 주님의 구원 역사와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특별한 면을 강조하여 만든 이념 축일 등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축일의 등급은 여섯 가지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등급 분류를 단순화시켜 ‘대축일(Sollemnitas)’, ‘축일’, ‘기념일(Memoria: 의무, 선택)’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상담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에게 신이 정말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을 이야기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분노만 줄 것 같아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까요?

☞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언변으로도 하느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증명해 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는 우리의 사고나 논리보다 훨씬 더 크시기에, 작은 우리의 그릇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은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철학적 논리나 신학적 언어가 아니라, 단순하고 구체적인 인간의 체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매님을 찾아 온 상처 받은 그 사람을 먼저 온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어떠한 말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믿으시고, 그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자매님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